

TV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채널A | KBS1 | KBS2 | MBC | KBC / SBS |
|--------------------|--|---|--------------------------------------|---|
| 6 40 코모닝 A | 00 KBS 뉴스광장 | 00 2TV 아침 1~2부 | 00 MBC뉴스투데이 1~2부 | 00 모닝와이드 1~2부 |
| 7 | 50 인간극장 | |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 30 KBC 모닝와이드 |
| 8 00 아침경제 클린타임 | 25 아침마당 | 00 KBS 아침 뉴스타임 | 30 생방송 오늘 아침 |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
|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 30 KBS 뉴스 | 00 TV소셜 <별이 되어 빛나라> 40 여유만만 |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 10 좋은 아침 |
| 10 20 시사인사이드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 40 지구촌 뉴스 | | 00 SBS 뉴스 30 SBS 생방송경제 |
|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 00 KBS 네트워크 특선 꿈 꾸는 학교를 찾다 55 바른말 고요말 | 00 발칙하게 고고(재) | 00 찾아라 맛있는 TV스페셜 | 10 KBC 생활뉴스 30 닥터 365(재) 35 인생황단 울드보이가 간다 |
| 12 40 채널A 뉴스특보 | 00 KBS 뉴스 12 | 05 청춘FC 허그리 일레븐(재) |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
| 1 50 뉴스특급 | 00 KBS 영웅역사관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세상 | 10 체인지업 도시탈출(재) | 30 아하 동물탐험대(재) | 00 2015 중흥 S-클래스 kbc 교동동문 골프대회 |
| 2 | 00 2015 문경세계군인 체육대회 <여기는 문경> |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 05 내꺼야 풀록 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 00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
| 3 00 직언직설 | 55 트트생활제 | 00 MBC 뉴스 05 후토스 미니미니 (재) 30 자동차부착상 위키 | 40 꼬마돌도도 40 통일전망대 | 00 SBS 뉴스 10 프로야구 중계서 |
| 4 30 캐드나마 | 00 오늘의 경제 10 광복70주년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 20 TV 책을 보다(재) | 00 TV 유치원 30 아육왕 PD의 요리인류 키친(재) 40 동물의 세계 | 2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내 같은 딸>(재) | 00 구러기 탐구생활 스페셜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
| 5 50 박정호의 뉴스 TOP10 |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라피 | 00 VJ특공대(재) | 00 MBC 이브닝 뉴스 | 00 SBS 뉴스스페이드 15 KBC 저녁 뉴스 30 로보트레인 |
| 6 |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세상 |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생생정보1 | 10 생방송 '빛날' |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
| 7 10 나는 몸신이다(재) | 00 KBS 뉴스 7 30 시사현장 맥 55 집중인터뷰 이사람 | 50 일일 드라마 <다 잘될거야> |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 10 시사저널 때때때때 20 일일드라마 <돌이온 행복> |
| 8 20 갈때까지 가보자 |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 30 2TV 저녁 생생정보2 55 1대100 |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내 같은 딸> |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SBS 뉴스스토리 |
| 9 30 채널A 종합뉴스 | 00 KBS 뉴스 9 | | 30 리얼스토리 논 | |
|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 00 한반도의 기억 세계의 기억이 되다 55 스포터 | 00 월화드라마 <발칙하게 고고> | 00 월화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 00 청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
| 11 00 충격 실화극 <싸인> | 00 KBS 뉴스라인 40 청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 10 우리동네 예체능 | 10 특집PD수첩 | 15 불타는 청춘 |
| 12 30 잘 살아보세(재) | 35 아시아 영화의 힘 |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 15 MBC 뉴스24 25 MBC 100분 토론 | 35 나이트 라인 |

EBS 1

| | | | |
|---------------------|-----------------------|-----------------------------|--|
| 05:00 EBSe 생활영어 | 09:40 토크쇼 부모 <이슈 N 램> | 15:15 꼬마기사 마이크 | 20:40 다큐 오늘 |
| 05:30 건강아이침 | 10:30 최고의 요리비결 | 15:30 세계사 시간여행 | 20:50 세계테마기행 <신짜오 매혹의 베트남> |
| 05:40 성공 인생후반전 |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 15:40 모피와 친구들 <신짜오 매혹의 베트남> | 21:30 한국기행 <우리가 산골로 간 까닭은> |
|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 11:10 다큐 오늘 |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재) | 21:50 EBS 다큐프라임 <곤충 mm의 세계 날로로 귀들의 아이들> |
| 07:00 레이디 버그 | 11:20 세계테마기행(재) | 16:30 코코코 다코(재) | 22:45 리얼극장 <수학1(상)> 18:00 TV중학 <수학1(상)> 18:00 TV중학 <역사 2> 11:10 <국어(3)> 19:20 필독중학 세계사 <수학2(상)> 20:00 EBS 기획시리즈 <수학3(상)> |
| 07:30 뽀롱뽀롱 뽀로로 | 12:00 EBS 정오 뉴스 | 16:45 당동명 유치원1~3(재) | 21:50 EBS 다큐프라임 <곤충 mm의 세계 날로로 귀들의 아이들> |
| 07:45 로보카 폴리 |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 17:30 뽀롱뽀롱 뽀로로 | 22:45 리얼극장 <수학1(상)> 18:00 TV중학 <수학1(상)> 18:00 TV중학 <역사 2> 11:10 <국어(3)> 19:20 필독중학 세계사 <수학2(상)> 20:00 EBS 기획시리즈 <수학3(상)> |
| 08:00 당동명 유치원1 | 13:05 지식채널e | 17:45 로보카 폴리 | 22:45 리얼극장 <수학1(상)> 18:00 TV중학 <수학1(상)> 18:00 TV중학 <역사 2> 11:10 <국어(3)> 19:20 필독중학 세계사 <수학2(상)> 20:00 EBS 기획시리즈 <수학3(상)> |
| 08:10 Why-최고다 호기심딱지 | 13:10 갤럭시 프로젝트 | 18:00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3 | 23:35 세계전통 아틀라스 <수학3(상)> |
| 08:20 당동명 유치원2 | 13:40 출거운 수학 EBS MATH | 18:45 신동방통 공룡 슈퍼 | 24:05 지식채널e(재) |
| 08:30 두다다공(재) |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 18:55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4 | 24:10 EBS 인문학 특강 |
| 08:40 당동명 유치원3 | 14:00 허풍선이 과학쇼 | 19:00 레이디 버그(재) | 25:00 세계 명작극장 <그랜드 체이터> |
| 08:45 코코코 다코 | 14:30 두바두바 눈보리 | 19:30 EBS뉴스 | |
|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 | 15:00 꼬마 철학자 후고 | 19:50 국헌직업 | |

EBS플러스1

| | |
|---|--|
| 00:00 올림포스 <국어 I-일곱개념> | 12:10 올림포스 <국어 I-일곱개념> |
| 00:50 " <미적분 I> 16:30 " <수학 I> | 13:05 수능 light <영어-독해> |
| 01:40 " <문학-일곱개념> 14:50 올림포스 <문학-일곱개념> | 14:0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국어A> |
| 02:30 " <미적분 II> 15:40 " <미적분 II> | 14:50 올림포스 <문학-일곱개념> |
| 03:20 " <수학 I> 16:30 " <수학 I> | 15:40 " <미적분 II> |
|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미적분 II> |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미적분 II> |
| 05:00 뉴탐스런 <돌리 I> 18:10 2016 N제 <국어B> | 18:10 " <경제> |
| 06:00 " <생명과학 I> 19:10 " <수학 I> | 20:00 EBS 인터넷 특강 <수학 I(상)> 21:50 " <문학A형> |
| 06:40 " <동아시사사> 20:00 EBS 인터넷 특강 <수학 I(상)> 21:50 " <문학A형> | 22:30 최태연의 교과서 나오는 불교문화 <수학A> 23:05 2016 인터넷 수능 <영어독해> |
| 07:30 " <윤리와 사상> 20:50 2016 인터넷 수능 <수학A> 23:05 2016 인터넷 수능 <영어독해> | |
| 08:20 2016 수능개념 <윤해정의 국어> |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A형> |
| 09:10 " <심주석의 수학 I> | |
| 10:1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영어> | |
| 11:00 " <수학A> | |

EBS플러스2

| | |
|----------------------------|--------------------------|
| 07:00 원산지관리사 시험대비강좌 | 15:20 만명정 <수학 3-2> |
| 07:30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시험대비 강좌 | 15:50 " <수학 4-2> |
| 08:30 한경 TESAT 시험대비강좌 | 16:20 " <수학 5-2> |
| 09:00 출거운 수학 EBS MATH | 16:50 " <수학 6-2> |
| 09:10 TV중학 <국어(1)(2)> | 17:20 초등중학 개념잡기 |
| 09:50 " <수학(1상)> | 17:50 다큐 오늘 <수학3(상)> |
| 10:30 " <역사 2> | 18:00 TV중학 <수학3(상)> |
| 11:10 " <국어(3)> | 19:20 필독중학 세계사 <수학3(상)> |
| 11:50 " <수학 2(상)> | 20:00 EBS 기획시리즈 <수학3(상)> |
| 12:30 실전취업가이드 | 20:50 EBS 기획시리즈 <수학3(상)> |
| 13:00 데일리리뷰 수험생 수학 | 21:40 EBS UCC 공모 나쁘다 |
| 13:10 등업시공 <수학1(하)> | 22:00 등업시공 <과학2(하)> |
| 13:50 " <과학 1(하)> | 22:40 " <수학3(하)> |
| 14:30 " <수학2(하)> | 23:20 필독중학 <사회1-2>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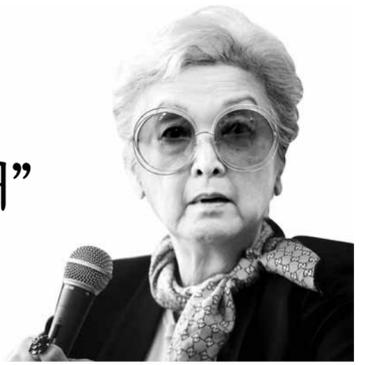
10월 6일(음 8월 24일 乙卯)

| | | | |
|---|--|---|---|
| 子 | 48년생 흥망의 여부를 결정짓는 갈림길에 선다. 60년생 직접 만나서 다투어 타결할 수 있다. 72년생 상호 보완해야만 하는 것이 산적해 있다. 84년생 일관성 있는 진행이 성사의 관건이다. 행운의 숫자 : 90, 49 | 午 | 42년생 효율적인 판공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54년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볼 일이다. 66년생 이동수나 매매 운이 원활하겠다. 78년생 마무리만 잘한 다면 타할 나위 없었다. 행운의 숫자 : 12, 33 |
| 丑 | 49년생 변화의 조짐이 예상되니 철저히 대비하자. 61년생 열성을 다 해야 할 시기이다. 73년생 길한 여건이 조성돼야 성과를 거두는 법이다. 85년생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기엔 아직이다. 행운의 숫자 : 16, 28 | 未 | 43년생 큰 고난 없이 무난하다. 55년생 서두르는 것은 착오만 야기한다. 67년생 의외의 일을 떠맡게 될 가능성이 큰 시기이다. 79년생 오른 길을 되돌아 가기에 너무 늦었다는 것을 명심하라. 행운의 숫자 : 45, 21 |
| 寅 | 38년생 초기에 손을 써야 한다. 50년생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62년생 서서히 안정 궤도에 진입한다. 74년생 긴밀히 살펴봐야 할 일이다. 86년생 정면으로 돌파해야 위기를 모면한다. 행운의 숫자 : 29, 40 | 申 | 44년생 변화를 갖는다면 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니 유지하는 게 좋다. 56년생 서로 인연이 박하니 억지로 안 되느니라. 68년생 알고 보면 굉장한 난제가 되리라. 80년생 순리에 따른다면 거리낄 것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56, 64 |
| 卯 | 39년생 삼가지 않으면 사면초가에 놓일 것이다. 51년생 중요한 일이나 확실히 해줘야 후환이 없다. 63년생 분주하게 돌아다닐 것이다. 75년생 진귀한 만남이 있을 것이니라. 87년생 현상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다. 행운의 숫자 : 10, 05 | 酉 | 45년생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해야 할 정도의 나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57년생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자. 69년생 좌충우돌하면서 다시다나하리라. 81년생 실제로 접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7, 73 |
| 辰 | 40년생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다면 나서지 않는 것이 옳다. 52년생 모순점을 해결한 뒤 조치할 일이다. 64년생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아쉽다. 76년생 주변의 평을 되새기며 유익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8, 76 | 戌 | 46년생 시작은 좋지만 원활한 마무리가 아쉽다. 58년생 쉬운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빠른 종결을 가져오겠다. 70년생 재의한다 면 상대는 흔쾌히 응할 가능성이 크다. 82년생 어떻게 임장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다. 행운의 숫자 : 24, 37 |
| 巳 | 41년생 충실히 대응하면서 알찬 여건으로 만들자. 53년생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인내로 일관해야 할 처지다. 65년생 난국을 타파할 돌파구가 보인다. 77년생 판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2, 81 | 亥 | 47년생 모든 것을 저지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59년생 요행을 바라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자. 71년생 액땀을 할 수도 있다. 83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48, 93 |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하녀” 다시 만나니 반가워 전도연은 예쁘고 연기 잘해”

33년 만에 한국 온 ‘하녀’ 원조 배우 이은심 부산국제영화제 참석 “감회 새롭네요”



영화 ‘하녀’(1960)에 출연했던 원로 여배우 이은심(80·본명 서옥선·사진)이 동명 리메이크작인 ‘하녀’(2010)에서 자신의 역할을 소화한 전도연의 연기를 극찬했다. 이은심은 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동서동 센텀컨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0년 개봉한) ‘하녀’를 봤는데 영화가 참 훌륭했다”면서 “전도연은 예쁘고 연기도 잘해 나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출연했던 ‘사당도 슬픔도 세월이 가면’(1962)을 연출한 이성구 감독과 결혼한 뒤 1982년 브라질에 이민한 이은심은 33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소감도 전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에서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오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요.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나이가 들어 영화제에 방문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은심은 일본 나고야 출생으로, 유두연 감독의 영화 ‘조춘’(1959)으로 영화계에 데뷔했다. 그의 두 번째 영화였던 김기영 감독의 ‘하녀’는 개봉 당시 큰 관심을 끌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은심은 ‘하녀’는 1960년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매우 생소하고 과격적인 캐리커처였다.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2010년 임상수 감독이 같은 제목으로 리메이크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하녀 촬영 당시 김기영 감독님이 잘 지도해주셔서 연기를

비교적 쉽게 했던 것 같아요. 담배를 피우는 장면과 영화 마지막에 계단에서 구르는 장면을 찍을 때는 좀 힘들었죠. 음악감독님, 조명감독님, 성우 등 스태프들이 워낙 잘해주셔서 제가 빛났던 것 같아요.” “하녀’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특별기획 프로그램인 ‘아시아 영화 100’에 선정됐다. 이은심은 자신의 딸과 손녀와 함께 지난 2일 부산 영화의전당 시나메돈극장에서 관람했다. “나이 여든에 한국에 와서 제가 출연한 영화를 다시 보니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상대역이었던 고(고) 김진규 씨와 함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요. 김진규 씨는 신인이었던 제가 촬영할 때 화 한번 내지 않으시고, 많은 것을 알려주셨어요. 참 감사하고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는 연기에 자신이 없어 은막을 떠났다고 했다. “능력이 없고, 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다시는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연기에 자신이 있었다면 계속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은심은 일취월장한 한국영화 산업에 크게 감탄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는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요새 한국영화를 보면 모든 것에 ‘이야’하고 감탄할 뿐이죠. 배우들도 다 낯선하고, 예쁘고, 연기도 어쩌면 저렇게 잘하는 나쁜 생각이 들어요. 한국영화가 참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인턴’ 53만2784명



‘사도’ 49만2528명



‘탐정: 더 비기닝’ 47만2538명

지난 주말 극장가 1위 ‘인턴’ ‘사도’ ‘탐정’ 과 흥미진진 3파전

지난 주말 극장가에서는 앤 해서웨이와 로버트 드 니로 주연의 ‘인턴’이 1위로 올라서며 ‘사도’, ‘탐정: 더 비기닝’과 함께 3파전을 형성했다. 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인턴’은 지난 2~4일 사흘간 53만2784명(매출액 점유율 26.7%)을 모아 주말 박스오피스 1위로 올라섰다. 전국 65개 스크린에서 746회 상영됐으며, 누적 관객 수는 전날까지 146만3603명에 이르렀다. 앤 해서웨이가 지난 220명을 거느린 인터넷 쇼핑몰의 창업자, 드 니로는 은퇴한 뒤 소일거리 삼아 이 회사에 일하러 온 인턴으로 등장한다. 영화는 30세 여성 최고경영자(CEO)와 70세 인턴이 함께 일하면서 직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과 비극을 그린 이준의 감독의 사극 ‘사도’는 지난 주말 전국 767개 스크린에서 1만1217회 상영됐으나 49만2528명(23.7%)의 관객을 동원하는데 그치며 박스오피스 2위로 내려왔다. 권상우·성동영 주연의 코믹 추리극 ‘탐정: 더 비기닝’은 지난 사흘간 전국 666개 스크린에서 8836회 상영되며 47만2538명(23.1%)이 관람했다. 누적 관객 수는 200만명을 돌파하며 기

대했던 것보다 좋은 흥행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탐정놀이를 즐기는 만화방 주인(권상우)과 배태랑 형사(성동영)의 추리극을 코미디와 섞은 영화다. ‘메이즈 러너’ 수편인 ‘메이즈 러너: 스코치 트라이얼’은 지난 주말 19만1527명(9.2%)의 관객을 모았다. 영화는 거대한 미로에서 탈출해 또 다른 세상 ‘스코치’에 도착한 주인공들이 의문의 조직 ‘위키드’에 맞서는 이야기다. 류승완 감독의 액션 영화 ‘베터링’은 지난 사흘간 8만2578명(4.1%)을 모여 초종종하게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누적 관객 수는 1334만1111명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해외 달의 수호자들의 모험담을 그린 ‘문: 달의 요정’은 5만7877명(2.6%), 설경구·여진구 주연의 ‘서부전선’은 4만381명(2.0%)의 관객을 끌었다. 이밖에 일본 공포영화 대표작 ‘주온’ 시리즈 최신판 ‘주온: 더 파이널’(3만5915명), 실화를 바탕으로 에베레스트 등반대의 드라마를 담은 ‘에베레스트’(3만1389명), 슈퍼스타 가수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과정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린 ‘대니 콜린스’(2만2714명)가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 10위 안에 들었다.

사별·재혼 그리고 상처... 배우 전원주 심경 고백

오늘 밤 10시 45분 EBS ‘리얼극장’



배우 전원주(76·사진 왼쪽)가 20대에 첫 남편과 사별하고 재혼한 사실을 방송에서 처음 고백했다. EBS 1TV ‘리얼극장’은 6일 밤 10시45분 방송되는 ‘배우 전원주의 비밀, 핏줄을 지킨 모성’ 편에서 전원주의 이러한 개인사가 공개된다고 5일 밝혔다. 제작진에 따르면 전원주는 첫 남편이 돌이 갔지만 아들만을 남기고 저세상으로 떠난 뒤, 1969년 아들 하나를 둔 남편과 재혼했다. 전원주와 첫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재규서는 친할머니 손에서 크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재혼한 어머니와 살게 됐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성씨가 아버지, 형과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가슴 졸이며 늘 고통 속에 살았다. 또 연기 생활로 바빠 어머니 때문에 심한 모성 결핍을 겪었고,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다. 전원주는 여자의 일부종사자 당연시되던 시절에 아들에게 재혼으로 상처를 줬다. /연합뉴스